

부모의 공격적 행동과 자녀의 내현적 문제의 관계에 대한 보호요인 탐색*

이은주**

초 록

본 연구는 부모의 공격적 행동과 자녀의 내현적 문제행동의 관계가 자녀의 성과 연령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이러한 관계를 중재하는 보호요인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었다.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부모의 공격적 행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많이 노출된 아동일수록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의 내현적 문제를 표출하였다. 초등 여학생이 초등 남학생보다 부모의 공격적 행동으로 인해 내현적 문제를 보일 가능성이 높지만, 중학생은 남녀 모두 부모의 공격적 행동에 대해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초등학생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자아통제감이 높을수록, 부모에 대한 애착이 높고 부모에 대한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높은 수준의 부모의 공격적 행동에도 불구하고 내현적 문제를 보이지 않았다. 연구의 의의 및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이 논의되었다.

주제어 : 공격적 행동, 내현적 문제, 보호요인, 탄력성

*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의 1차 및 2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것임.

** 한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I. 서 론

아동은 최초의 밀접한 대인관계라고 할 수 있는 부모를 통해 세상과 자신에 대한 도식(schema)을 형성하며, 이러한 도식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직면하게 되는 여러 대인 관계 경험을 해석하고 대처하는 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Bretherton, Ridgeway, & Cassidy, 1990). 따라서 가정 내에서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사건들은 아직 사회적, 인지적으로 미성숙한 아동기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심리적 및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부모의 신체적, 언어적 처벌 및 학대를 당한 경험이나 더 나아가 단순히 부모의 공격적 행동에 간접적으로 노출된 경험도 자녀의 부적응에 영향을 미친다(O'Keefe, 1994). 실제로 폭력가정의 아동들이 그렇지 않은 가정의 아동에 비해 심한 정신병리를 보이는 경우가 네 배에 이른다(Holden & Ritchie, 1991). 공격적 부모 환경에 처한 청소년들은 일반 청소년들에 비해 정신분열과 자살충동 뿐만 아니라 불안, 우울, 대인관계 민감성, 강박관념이 높았으며, 교우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거나 학업 성적이 떨어지는 등 학교생활에서의 부적응이 심각하였다(권영옥·이정덕, 1999).

그런데 많은 선행연구들이 일관되게 부모의 공격적 행동에 많이 노출될수록 자녀의 문제행동 수준이 높아짐을 보고하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안고 있다. 첫째, 부모의 공격적 행동과 자녀의 문제행동의 관계가 성과 연령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선행연구의 결과들은 일관적이지 못하다. 둘째, 부모의 공격적 행동과 자녀의 문제행동의 높은 상관성이 모든 공격적 부모의 자녀들이 문제행동을 보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공격적 부모의 아동들과 일반가정 아동들의 문제행동을 단선적으로 비교하는데 관심을 두었다. 따라서 공격적 부모의 자녀들 내 개인차에 대한 연구를 통해 부모의 공격적 행동의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보호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밝힐 필요가 있다. 한편 부모의 공격적 행동과 자녀의 문제행동의 관계에 대한 자녀의 성차와 연령차, 그리고 이러한 관계를 중재하는 보호요인은 문제행동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인다(Tiet et al., 2001). 특히 내현적 및 외현적 문제는 성과 유관한 변인이므로 문제유형별로 별도의 분석이 요구된다(Tiet & Huizinga, 2002). 선행연구들이 주로 공격적 부모환경에 처한 자녀의 비행 및 외현적 문제를 다룬데 비해 자녀의 내현적 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다소 제한적이라는 판단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행동문제를 내현적 문제로 한정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부모의 공격적 행동과 자녀의 내현적 문제의 관계는 자녀의 성과 연령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2. 부모의 공격적 행동과 자녀의 내현적 문제의 관계를 중재하는 보호요인은 자녀의 성과 연령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II. 선행연구의 고찰

1. 부모의 공격적 행동과 자녀의 내현적 문제 : 성차와 연령차

부모의 공격적 행동으로 인해 자녀가 경험하는 내현적 문제의 수준에 유의미한 성차가 있을까? 여아에 비해 남아가 모든 유형의 스트레스적 생활사건에 보다 취약하다고 주장한 Zaslav와 Hayes(1986)에 의하면 공격적 부모환경에 처한 남아가 더 높은 내현적 문제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남아는 외현적 문제를, 여아는 내현적 문제를 많이 보인다는 점은 이미 많은 선행연구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검증된 결과이다(한미현, 1996). 그렇다면 공격적 부모환경에 처한 자녀들 중 내현적 문제를 표출하는 경향도 여아가 남아보다 현저할까? 이러한 질문에 대해 선행연구의 결과는 각기 다른 해석을 제공하고 있다. 일부 선행연구에 의하면 부모의 공격적 행동에 노출되었을 때 여아의 내면화 문제의 수준이 남아보다 높았다(권영옥·이정덕, 1999; O'Keefe, 1994; Spaccarelli, Sandler, & Roosa, 1994). 더욱이 이들 연구에서 여아는 내면화 문제에서 뿐만 아니라 외면화 문제에서도 남아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냄으로써 부모의 공격적 행동에 더욱 취약함을 보여주었다. 이와 반대로 부모의 공격성은 남아에게 더 많은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도 있다(Wolfe, Jaffe, Wilson, & Zak, 1985). 가정 내 폭력으로 인해 남아가 내현적 문제에 있어서 임상적 영역에 속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았으며(신혜섭, 2000; Smith, O'Conner, & Berthelsen, 1996), 학령전기

아동의 경우에도 부모의 공격적 행동으로 인해 여아의 내현적 문제행동에 변화가 없는 반면 오히려 남아의 내현적 문제가 증가하였다(Stagg, Wills, & Howell, 1989).

이에 반해 Sternberg 등(1993)은 부모공격성에 전혀 노출되지 않은 아동의 경우 여아의 내현적 문제의 수준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격적 부모환경에 처한 아동 집단에서는 남여는 비슷한 수준의 내현적 문제를 나타냄으로써, 적어도 내현적 문제에 있어서 부모공격성으로 인한 자녀의 행동문제에 성차가 없음을 보고하였다. 김정란(2003)에서도 부모의 공격적 행동에 노출된 아동기 자녀들의 내현적 문제에 별다른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민식(1999)은 부모의 공격적인 상호작용이 아동의 부적응 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아동의 성별을 구분하여 검토하는 시도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부모의 공격적 행동으로 인해 자녀가 내현적 문제를 보일 가능성이 남녀간에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명확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자녀의 성별과 함께 연령도 부모의 공격적 행동이 자녀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유발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Hetherington(1984)에 의하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부모의 갈등과 부정적 행동을 인식하고 대처하는 능력이 발달한다. 또한 아동기는 부모자녀 관계가 강하지만 청소년기에 이르면서 또래와 학교생활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부모 자녀관계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며, 따라서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라 부모의 공격적 행동에 대한 대처반응이나 부적응 문제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일부 선행연구들이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부모의 폭력에 노출됨으로써 부정적 영향을 많이 받음을 보고하고 있다(Hughes, 1988; O'Keefe, 1994). Wolfe 등(2003)의 메타분석 연구에서 청소년기 자녀보다 학령기 아동이 가정폭력에 더욱 취약하였다. 국내연구(김정란, 2003)에서도 초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부모공격성으로 인해 내현적 문제를 많이 보였다.

그런데 더 나아가 공격적 부모환경에 처한 자녀의 부적응의 발달단계별 차이는 자녀의 성별과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Werner와 Smith(1982)는 출생에서 10세까지는 남아가 부정적인 경험에 더 취약하지만, 그 이후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남아의 문제가 감소되고 여아의 문제가 증가하여 이러한 경향은 역전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하였다. 즉 부모의 공격적 행동에 대한 자녀의 부적응적 반응의 성별 차이는 이들의 발달단계에 따라 다름을 시사한다. 이에 기초해 볼 때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부모의 공격적 행동으로 인한 자녀의 내현적 문제의 성차에 대한 결과가 비일관적인 것은 아마도 연구대상 아동들의 성차를 고려하면서 이들의 연령적 차이를 함께 고려하지 않은데 일부 기인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성별과 연령에 따라 부모의 공격적 행동과 자녀의 문제행동의 관계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해 보고자 한다.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라 부모의 공격적 행동으로 인한 문제행동이 다르게 나타난다면, 부모의 공격적 행동에 노출된 자녀의 적응을 돕기 위한 교육적 개입은 이들의 발달단계와 특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부모의 공격적 행동이 아동기 및 청소년기 자녀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부모의 공격적 행동과 자녀의 내현적 문제: 보호요인

아동은 환경의 영향을 받는 동시에 능동적으로 자신의 환경을 조절한다. 따라서 부정적 환경에 처했을 때 부적응을 일으켜 문제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지만, 개인의 적응 능력에 따라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위험요소에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발달을 긍정적으로 이끌어가는 능력을 적응유연성 또는 탄력성(resilience)이라고 한다. 앞에서 살펴본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정상가정의 아동들에 비해 폭력적, 공격적인 가정의 아동들이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따라서 문제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음을 강조한다. 그러나 공격적 가정환경의 자녀들이 모두 부적응과 문제행동을 보이는 것은 아니며, 개인적 혹은 환경적인 특성으로 인해 위험요인의 부정적 영향을 완충시킬 수도 있다(Wolin & Wolin, 1993). 실제로 조미숙(2003)의 연구에서 심각한 가정폭력 환경의 청소년 중 약 25%는 일반가정 청소년의 평균점수와 비교해서 오히려 낮은 수준의 행동문제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공격적 가정환경의 청소년이 대부분 문제행동을 보일 것이라는 기존의 인식이 편견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김정란(2003)의 연구에서도 가정폭력에 노출된 정도가 심할수록 임상집단으로 분류되는 빈도가 현저히 높기는 하지만, 가정폭력에 노출된 자녀들의 70% 이상은 오히려 문제행동을 표출하지 않은 일반집단으로 분류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공격적 부모의 아동들과 일반가정 아동들의 문제행동을 단선적으로

비교하는데 관심을 두어서는 공격적 부모의 자녀들 내 개인차를 파악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동일한 공격적 가정환경에서도 어떤 아동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며 보다 적응적인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공격적 부모환경에 처한 자녀들 중 문제행동을 보이지 않는 자녀들을 중심으로 그들을 공격적 부모환경의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보호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밝히는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공격적 부모환경과 같이 아동의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문제행동을 야기하는 요인을 위험요인(risk factor)이라고 하며, 부정적 결과가 예측되는 위기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이끄는 요인을 보호요인(protective factor)이라고 한다. 위험요인의 수준이 높더라도 보호요인의 수준을 높여주면 아동의 문제행동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보호요인의 확인과 검증은 아동의 문제행동의 중재를 위해 매우 의미 있는 과제이다. 이는 부모의 공격적 행동에 노출된 자녀들을 위한 치료나 교육에 매우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되리라 여겨진다.

공격적인 부모환경에 처한 자녀의 탄력성에 대한 연구에서 자녀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보호요인들이 검증되었는데, 그 요인들은 일반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Garmezy, 1991). 첫째로 개인적 요인이다. O'Keefe(1998)의 연구에서 높은 수준의 부모의 폭력에도 불구하고 적응집단과 부적응집단에 차이가 나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자아존중감을 들었다. 또한 자기통제력이 높은 아동일수록 위기적 환경 속에서도 문제행동을 덜 보이며 스트레스에도 잘 대처한다(Feldman & Weinberger, 1994).

둘째로 가족의 기능 및 구조와 관련된 요인을 들 수 있다. 비록 공격적 부모환경에서도 긍정적 가족기능은 자녀의 부적응을 완화할 수 있다. 특히 공격적 부모환경에 처한 경우에도 나머지 한쪽 부모와의 긍정적 관계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하였다(O'Keefe, 1994; Wyman et al., 1991). 또한 부모에 대한 애착과 가족 구성원간의 친밀성이 높을수록 자녀들의 문제행동 수준이 낮았다(신희경, 2006; McEvoy & Welker, 2000). 부모가 엄격하면서도 애정적이고 지지적인 양육태도를 가진 경우 자녀의 적응에 도움을 주었으며(Eisenberg & Valiente, 2002), 부모와의 개방적 의사소통은 자녀의 비행감소 및 사회적 유능성에 기여한다 (Clark & Shields, 1997).

다음으로 가족외적 요인을 들 수 있다. 비록 공격적인 부모에 의해 양육되는 경우에도 다른 사람과 사회적 유대관계를 발전시킨 경우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다

(Rutter, 1990). 아동 및 초기 청소년기에 중요한 사회적 지원은 또래친구나 교사가 대표적이므로(한미현, 1996; Leadbeater et al., 1999), 긍정적 또래관계를 형성하고 교사의 지지를 받을수록 공격적 부모에 대한 탄력성이 증가할 것이다. 또한 공격적 부모환경에 처한 자녀의 문제행동에 대해 관심과 격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의 지지 체계도 보호기능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Gore & Eckenrode, 1996).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공격적 부모환경의 부정적 영향력을 조절하는 보호요인의 검증을 위해 다음의 연구변인을 선정하였다. 먼저 개인적 요인으로 성별 및 연령과 함께 자아존중감과 자아통제감을, 가족 관련 요인으로 부모에 대한 애착, 부모에 대한 스트레스 및 가족 구성원간의 친밀성을, 그리고 가족 외적 요인으로 또래관계, 교사에 대한 애착, 및 지역사회의 보호를 살펴볼 것이다. 공격적 부모환경과 같은 위험요인 속에서도 문제행동을 보이지 않는 탄력적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위에 제시한 잠재적 보호요인에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해 보고자 한다. 더 나아가 O'Keefe(1998)에 의하면 아동의 성에 따라 보호요인의 역할이 다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공격적 행동에 대한 탄력성 제고에 도움이 되는 보호요인은 성과 연령에 따라 각각 어떻게 다른지 살펴볼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자료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지난 2003년부터 전국의 중학교 2학년과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종단적으로 추적조사하고 있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Korea Youth Panel Survey)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이 조사는 청소년의 진로, 여가, 일탈 등의 생활실태에 대해 향후 수년간 지속적으로 자료를 구축할 목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구축된 자료는 중학교 2학년 패널 1-2차년도 자료와 초등학교 4학년 패널 1차년도 자료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패널 1차년도)과 중학교 3학년(패널 2차년도)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남학생 3,128명(초: 1,524명, 여:

1,604명)과 여학생 2,925명(초: 1,320명, 중: 1,605명)으로 총 6,053명이었다.

2. 연구 변인

본 연구에서 부모의 공격적 행동이란 자녀에게 노출된 부모의 신체적, 언어적 공격적 행동을 의미하며, 부모에게 공격이나 학대를 당한 경험과 같은 직접적 노출 및 부모의 부부간 공격적 행동을 목격한 경험과 같은 간접적 노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문제행동이란 환경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동적, 정서적 부적응의 결과로서, 가정, 학교, 기타 장면에서 행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다. 본 연구에서는 위축, 불안, 우울, 외로움과 같은 내현적 문제행동(internalizing problems)만을 다루었다. 그리고 부모의 공격적 행동과 자녀의 내현적 문제의 관계에 대한 보호요인으로 자아존중감, 자아통제감, 부모에 대한 애착, 부모에 대한 스트레스, 형제관계, 가족의 친밀성, 친구에 대한 애착, 교사에 대한 애착, 및 지역사회의 보호가 포함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각 하위척도의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 α 는 .63에서 .89까지로 비교적 양호하였다. 구체적인 측정 문항의 내용 및 신뢰도는 <표 1>과 같다.

3. 집단 구분과 자료분석

성별과 학년에 따라 부모의 공격적 행동과 자녀의 문제행동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성별(남·여)×학년(초·중)×부모공격성(상·하)의 삼원변량분석(thre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부모공격성의 상하 구분은 평균 ± 1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하였다. 그리고 부모의 공격적 행동과 문제행동의 관계를 증재하는 보호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독립변수가 양적 변수이며 종속변수가 이변량을 가진 비선형의 회귀분석을 말하는 것으로, 선형회귀모형과 비슷하나 예측변수군의 값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특성이나 결과가 있는지 여부를 예측하려 할 때 유용하다. 특히 본 연구에서 부모의 공격적 행동과 문제행동을 잔차플롯한 결과 정규분포를 따르지 못해서 이를 이분형으로 변환시켜 로지스틱 회귀분석모형을 사용하였다.

<표 1> 연구 변인별 문항 및 신뢰도 계수

영역	변인	문항 수와 문항 번호	문항 내용
독립변인	부모의 공격적 행동 (.80)	부모간 공격적 행동 문항 2 문항 33-12, 13	- 나는 부모님이 서로에게 욕설을 한 것을 본 적이 많이 있다. - 나는 부모님이 상대방을 때리는 것을 본 적이 많이 있다.
		자녀에 대한 공격적 행동 2 문항 33-14, 15	-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심한 욕설을 자주 듣는 편이다. -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심하게 맞은 적이 많이 있다.
종속변인	내현적 문제행동 (.83)	6 문항 49-3: 10, 11, 12, 13, 14, 15	- 나는 모든 일에 관심과 흥미가 없는 편이다. - 나는 때때로 아무런 이유 없이 무척 불안할 때가 있다. - 나는 때때로 아무런 이유 없이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개인관련변인	자아존중감 (.74)	6 문항 49-1: 1, 2, 3, 4, 5, 6	- 자신이 능력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 자신이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자아통제감 (.70)	6 문항 49-1, 2, 3, 4, 5, 6	- 나는 화가 나면 물건을 가리지 않는다. - 일이 힘들고 복잡해 지면 곧 포기한다.
가족관련변인	부모에 대한 애착 (.83)	6 문항 33-1, 2, 3, 4, 5, 6	- 부모님은 늘 사랑과 애정을 보이신다. - 부모님과 나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부모에 대한 스트레스 (.89)	4 문항 50-1, 2, 3, 4	- 부모님과 의견 충돌이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 부모님과 대화가 안통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형제관계	1 문항 33-11	- 나는 형제자매와 사이좋게 잘 지내는 편이다.
	가족친밀성	1 문항 48	- 가족을 포함해서 자신이 가장 친하게 지내는 사람을 순서대로 5명까지 기입함. (지명된 5명 중 가족구성원이 지명된 정도를 측정함. 여기서 가장 친한 사람으로 지명된 경우 5점의 가중치를 두고 두 번째 지명인 경우 4점의 가중치를 두는 방식으로 측정함)
가족외적변인	친구애착 (.74)	4 문항 37-3: 1, 2, 3, 4	- 그들과 오랫동안 친구로 지내고 싶다. - 그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즐겁다.
	교사애착 (.63)	3 문항 35-4, 5, 6	- 선생님은 사랑과 관심을 보여 주신다. - 선생님께 내 고민을 털어 놓고 이야기할 수 있다.
	지역사회보호 (.79)	6 문항 36-1, 2, 3, 4, 5, 6	- 우리 동네에서 내가 다른 아이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으면 동네 사람들이 말리거나 경찰에 신고할 것이다.

※ 초4와 중3 질문지의 문항 번호가 다르며, 표의 문항번호는 중3 자료 기준임.

()는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임.

가족친밀성 변인을 제외하고 모든 변인은 Likert식 5점 척도 (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음.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위해 탄력집단과 부적응집단의 아동을 선별하였다. 탄력집단의 선정에는 적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역경이나 위협에 노출된 정도가 높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달과정에서 긍정적인 적응을 하고 있다는 두 가지 기준이 요구된다(Masten et al., 199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공격적 행동은 1 표준편차 이상의 범위에 해당되지만 내현적 문제는 1 표준편차 이하에 해당되는 이들로 탄력집단을 구성하였다. 비교집단으로 선정된 부적응집단은 부모공격성과 내현적 문제가 모두 1 표준편차 이상의 범위에 해당되는 이들로써 위협에 노출된 영향으로 잘 적응하지 못하는 집단이다.

그런데 이러한 집단구분의 기준은 다소 임의적이며, 또한 이러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위험요소에 노출된 연구대상을 선택한 후 다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적응·부적응 집단을 추출하므로 연구대상이 너무 소수로 남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비평(Robinson, 2000)이 있다. 또한 연구자에 따라 탄력집단의 구분에 적용되는 기준은 상하위 25%, 평균 $\pm 0.5 \times$ 표준편차, 평균 $\pm 1 \times$ 표준편차 등 다양하지만(Masten et al., 1999), 집단구분의 기준점수를 어느 수준으로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은 역경이나 위협에 처한 개인의 적응 수준에 연구자가 관심을 기울이는 정도에 달려있다(Luthar, Cicchetti, & Becker, 2000). 본 연구에서는 임의적 집단구분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Luthar 등(2000)의 제안에 따라, 보다 제한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상하위 16%(평균 $\pm 1 \times$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전체 연구대상 중에서 탄력집단에 87명(1.4%)과 부적응집단에 295명(4.9%)이 선정되었다.

IV. 연구결과

1. 각 연구변인들의 상관 분석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분석하기에 앞서 각 연구변인들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예상한 바와 같이 부모의 공격적 행동에 많이 노출될수록 자녀들은 높은 수준의 내현적 문제행동을 나타냈다. 또한 부모의 공격적 행동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에 대한 애

착($r=-.28$)이 낮고 부모에 대한 스트레스($r=.34$)가 높았다. 또한 형제관계($r=-.11$) 및 가족친밀성($r=-.17$)과도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모의 공격적 행동은 전반적으로 가족의 기능적 결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부모의 공격적 행동은 자녀의 심리적 건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바, 부모의 공격적 행동에 많이 노출될수록 자아존중감($r=-.24$)과 자아통제감($r=-.30$)이 낮았다. 또한 부모의 공격적 행동에 많이 노출될수록 자녀의 친구에 대한 애착($r=-.11$)이 낮은 바, 자녀의 또래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부모의 공격적 행동은 자녀의 문제행동 및 본 연구에서 설정한 잠정적 보호요인 변인들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all $p<.001$).

<표 2> 부모의 공격적 행동, 성별, 학년별 문제행동의 삼원변량분석

변량원	SS	DF	MS	F
성(A)	17.63	1	17.63	27.86***
학년 (B)	206.98	1	206.98	327.14***
부모공격성 (C)	168.63	1	168.63	266.52***
A×B	.87	1	.87	1.37
A×C	.48	1	.48	.77
B×C	8.89	1	8.89	14.06***
A×B×C	3.29	1	3.29	5.20*
오 차	1976.58	3,124	.63	

*** $p<.001$, ** $p<.01$, * $p<.05$

2. 자녀의 성과 연령에 따라 부모의 공격적 행동과 내현적 문제행동의 관계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부모의 공격적 행동과 자녀의 내현적 문제의 관계에서 성차와 학년차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내현적 문제를 종속변인으로 두고 부모의 공격적 행동, 성, 학년을 독립변인으로 한 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성, 학년, 및 부모공격성의 주효과가 모두 유의미하였다(all $p<.001$).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초등학생에 비해 중학생이, 그리고 부모의 공격적 행동 수준이 높은 집단이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의 내현적 문제를 나타냈다. 또한 부모공격성×학년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하여서 부모의 공격적 행동과 자녀의 문제행동의 관계가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F(1, 3124)=14.06$, $p<.001$. 집단별 평균을 비교한 결과 부모공격성 상·하 집단별 문제행동의 차이는 중학생보다 초등학생에게서 현저하였다. 즉 부모의 공격적 행동과 자녀의 내현적 문제의 관계가 초등학생에게서 더 높음을 의미한다. 한편 부모공격성×학년×성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F_{1, 3124}=5.20$, $p<.05$), 초등학생과 중학생 집단을 구분하여 별도의 부모공격성×성의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 부모의 공격적 행동, 성별 문제행동의 이원변량분석: 초·중 비교

변량원	초등학생				중학생			
	SS	DF	MS	F	SS	DF	MS	F
성(A)	5.19	1	5.19	7.92**	13.55	1	13.55	22.25***
부모공격성 (B)	123.93	1	123.93	189.20***	51.51	1	51.51	84.56***
A×B	.61	1	.61	.92	3.25	1	3.25	5.33*
오차	1050.69	1,604	.66		925.89	1,520	.61	

*** $p<.001$, ** $p<.01$, * $p<.05$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초등학생 집단에서 자녀의 내현적 문제에 대한 성의 주효과($F_{1,1604}=7.92$, $p<.01$)와 부모공격성의 주효과($F_{1,1604}=189.20$, $p<.001$)는 유의미하였으나, 성×부모공격성의 상호작용 효과는 없었다. 즉 초등학생의 경우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부모공격성이 높은 집단이 부모공격성이 낮은 집단보다 내현적 문제행동의 수준이 높았다. 그리고 이러한 부모의 공격적 행동과 자녀의 문제행동의 관계는 초등학생들의 경우 성별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한편 중학생 집단의 경우, 성($F_{1, 1520}=22.25$, $p<.001$)과 부모공격성($F_{1, 1520}=84.56$, $p<.001$)의 주효과 뿐만 아니라 성×부모공격성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F(1, 1520)=5.33$, $p<.05$. 즉 중학생들의 내현적 문제행동의 수준은 여학생이 높지만 부모공격성 상하 집단간 문제행동의 차이는 오히려 남학생에게서 높게 나타났다(표 4 참조).

<표 4> 부모의 공격적, 성별, 학년별 문제행동: 평균과 표준편차

부모공격성	초등학생			중학생		
	남	여	전 체	남	여	전체
상	2.41 (.84)	2.58 (.89)	2.47 (.86)	2.88 (.76)	2.98 (.72)	2.92 (.75)
하	1.85 (.76)	1.93 (.80)	1.89 (.78)	2.40 (.81)	2.70 (.79)	2.56 (.81)
전 체	2.07 (.84)	2.09 (.87)	2.08 (.86)	2.62 (.82)	2.79 (.78)	2.70 (.81)

종합해 보면 여학생이, 그리고 중학생이 내현적 문제행동의 수준은 높다. 그런데 부모의 공격적 행동과 자녀의 내현적 문제의 관계는 중학생보다는 초등학생에게 더 높아서, 초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해 부모의 공격적 행동으로 인해 내현적 문제행동을 많이 표출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초등학생들은 남녀 모두 비슷한 수준의 부모공격성과 내현적 문제의 관계를 보였다. 반면 중학생들의 경우 부모의 공격적 행동을 많이 경험할수록 내현적 문제를 보일 가능성이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높았으며, 오히려 부모공격성이 낮은 집단에서 문제행동의 뚜렷한 성차가 있었다.

3. 부모의 공격적 행동과 내현적 문제행동의 관계를 중재하는 보호요인은 성과 연령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부모의 공격적 행동이라는 동일한 위기환경에도 불구하고 적응력이 높은 자녀들을 구분하는데 있어서 각각의 잠정적 보호요인이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성과 학년 구분 없이 탄력집단과 부적응집단에 대해 잠정적 보호요인 전체를 동시 투입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델의 적합도가 유의하였으며($p < .001$), 탄력집단과 부적응집단이 정확히 분류된 정도는 84.2%였다. 두 집단을 판별하는데 유의한 영향력을 보인 변인은 학년, 부모에 대한 애착, 부모에 대한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및 자아통제감인 것으로 나타났다(all $p < .01$, 표 5 참조).

<표 5> 탄력집단과 부적응집단 구분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전체

변 인		B	S.E.	Wald	Exp(B)
개인요인	학 년	.379	.085	19.757***	1.461
	성	-.586	.331	3.141	.557
	자아통제감	.774	.227	11.614**	2.169
	자아존중감	1.279	.249	26.357***	3.595
가족요인	부모애착	.608	.217	7.829**	1.836
	부모스트레스	-1.014	.163	38.730***	.363
	형제관계	-.114	.129	.779	.892
	가족친밀성	-.040	.135	.088	.961
가족 외 요인	친구애착	-.322	.197	2.675	.725
	교사애착	-.143	.171	.691	.867
	지역사회	.033	.193	.030	1.034
Concordant		84.2%			
-2 Log Likelihood		286.81			
Model χ^2		122.07***	df=11		
Nagelkerke R ²		.42			

***p<.001, **p<.01, *p<.05

학년이 1단위 증가할수록 탄력집단으로 분류될 가능성은 46%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모에 대한 애착이 1단위 증가할수록 탄력집단으로 분류될 가능성은 84% 증가한 반면, 부모에 대한 스트레스가 1단위 증가할수록 탄력집단으로 분류될 가능성은 6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아존중감과 자아통제감이 1단위 증가할수록 탄력집단으로 분류될 가능성은 각각 3.6배와 2.2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모의 공격적 행동에 많이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초등학생에 비해 중학생일수록, 부모에 대한 애착은 높고 스트레스는 낮을수록, 자아존중감과 자아통제감이 높을수록 부모의 공격적 행동에 대한 탄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6> 탄력집단과 부적응집단 구분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남·여 비교

변 인	남				여			
	B	S.E.	Wald	Exp(B)	B	S.E.	Wald	Exp(B)
학 년	.318	.099	10.220***	1.374	.539	.183	8.695**	1.714
개인요인								
자아통제감	.779	.277	7.924**	2.180	.851	.427	3.974*	2.342
자아존중감	1.219	.310	15.445***	3.383	1.635	.476	11.806***	5.128
가족요인								
부모애착	.674	.263	6.587**	1.962	.502	.432	1.349	1.651
스트레스	-1.012	.204	24.566***	.363	-1.138	.304	14.035***	.320
형제관계	-.059	.146	.161	.943	-.320	.290	1.218	.726
가족친밀성	-.032	.174	.033	.969	-.010	.230	.002	.990
가족 외 요인								
친구애착	-.438	.240	3.334	.645	-.218	.388	.315	.805
교사애착	-.067	.241	.077	.935	-.136	.270	.254	.873
지역사회	.154	.229	.448	1.166	-.199	.393	.256	.820
Concordant	82.4%				88.2%			
-2 Log Likelihood	194.53				87.24			
Model χ^2	71.67***				49.01***			
Nagelkerke R^2	.39				.47			

***p<.001, **p<.01, *p<.05

다음으로 성과 학년에 따라 부모의 공격적 행동에 대한 보호요인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성과 학년을 구분하여 별도의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6>에 제시한 바와 같이, 남학생의 경우 학년, 자아통제감, 자아존중감, 부모에 대한 애착, 부모에 대한 스트레스가 유의미한 보호요인이었으며, 여학생의 경우, 학년, 자아통제감, 자아존중감, 그리고 부모에 대한 스트레스가 유의미한 보호요인이었다(all $p<.05$). 남녀 모두 초등학생에 비해 중학생의 탄력성이 높았으며, 자아통제감과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그리고 부모에 대한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탄력성이 높았다. 따라서 부모에 대한 애착을 제외하고 성별에 따라 부모공격성에 대한 보호요인에 주목할 만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탄력집단과 부적응집단 구분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초·중 비교

변인	초등학생				중학생			
	B	S.E.	Wald	Exp(B)	B	S.E.	Wald	Exp(B)
성	-1.179	.552	4.566*	.308	-.042	.460	.009	.958
개인요인								
자아통제감	.567	.352	2.597	1.764	1.003	.321	9.781**	2.728
자아존중감	1.627	.389	17.482***	5.091	1.173	.367	10.194***	3.231
가족요인								
부모애착	.452	.311	2.112	1.571	.815	.323	6.365*	2.260
스트레스	-1.378	.297	21.535***	.252	-.901	.213	17.880***	.406
형제관계	-.056	.156	.131	.945	-.215	.257	.696	.807
가족친밀성	.145	.166	.762	1.156	-.712	.378	3.548	.490
가족 외 요인								
친구애착	-.273	.367	.552	.761	-.469	.252	3.465	.626
교사애착	-.118	.271	.190	.889	-.022	.241	.009	.978
지역사회	.074	.297	.062	1.077	.006	.285	.001	1.006
Concordant	84.4%				82.9%			
-2 Log Likelihood	133.56				140.91			
Model χ^2	71.55***				62.10***			
Nagelkerke R^2	.47				.43			

***p<.001, **p<.01, *p<.05

한편 초등학생의 경우, 성별, 자아존중감, 부모에 대한 스트레스가 유의미한 보호요인임에 비해 중학생의 경우 자아통제감과 자아존중감, 부모에 대한 애착과 부모에 대한 스트레스가 유의미한 보호요인이었다. 성별은 초등학생 집단에서만 유의미한 보호요인이어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탄력집단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높았으나 중학생 집단에서 부모 공격성에 대한 탄력성에 성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 구분 없이 공통적으로 자아존중감과 부모에 대한 스트레스가 유의미한 보호요인이었으며, 자아통제감과 부모에 대한 애착은 중학생에게서만 부모공격성에 대한 탄력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체적으로 초등학생에 비해 중학생들의 부모공격성에 대한 보호요인이 다양화되는 경향은 있지만, 구체적 보호요인에서 대조적인 차이는 없었다(표 7 참조).

종합해 보면, 부모의 공격적 행동과 자녀의 내현적 문제행동의 관계를 중재하는 보

호요인은 성별과 학년에 따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오히려 성별과 학년에 걸쳐 공통적으로 유의미한 보호요인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성별과 학년에 걸쳐 유의미한 보호요인은 학년, 자아존중감 및 부모에 대한 스트레스였다. 비록 부모가 공격적 행동을 많이 보일지라도 자녀가 초등학생보다는 중학생이라면, 부모에 대한 스트레스 수준이 낮다면, 그리고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할 수 있다면 자녀들은 부모의 공격적 행동에 대한 탄력성을 가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부모의 공격적 행동과 자녀의 내현적 문제행동의 관계가 성과 연령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부모의 공격적 행동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중재하는 보호요인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많은 선행연구(예: 김정란, 2003; Davies & Cummings, 1994; O'Keefe, 1994)에서 검증된 바와 같이 부모의 공격적 행동은 자녀에게 부적응을 일으키는 위험요인을 확인하였다. 부모의 공격적 행동은 부모에 대한 애착 부족 및 높은 스트레스, 부정적 형제관계 등 가족의 기능적 결손과 관련이 있었다. 또한 자녀들의 자아존중감, 자아통제감과 같은 심리적 건강 및 또래관계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인이었다. 특히 부모의 공격적 행동은 자녀의 불안, 외로움, 우울과 같은 내현적 문제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내현적 문제행동의 수준에서 비교적 뚜렷한 성차와 연령차가 확인되었다.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그리고 초등학생보다 중학생이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의 내현적 문제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여아가 남아에 비해 불안 및 우울과 같은 내현적 문제행동을 많이 보인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심희옥, 1997; 한미현, 1996)와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신혜섭(2000)은 4-11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아동의 내현적 문제행동이 증가하였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4학년 아동과 중학교 3학년 초기 청소년 자녀의 내현적 문제를 비교하였다는 점에서 신혜섭(2000)과 연구대상의

연령에 차이는 있지만, 적어도 학령기 아동이 초기 청소년보다 내현적 문제행동의 수준이 높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 부모의 공격적 행동과 자녀의 내현적 문제의 관계는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비록 초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낮은 수준의 내현적 문제를 보이지만, 부모의 공격적 행동으로 인해 내현적 문제를 보일 가능성은 오히려 중학생보다 높았다. 같은 맥락에서 부모의 공격성에 대한 탄력집단과 부적응집단을 판별하는 데 학년은 유의미한 변인인 바, 초등학생보다 중학생이 부모의 공격성에 대해 탄력적이었다. 다시 말하면 부모의 공격적 행동은 청소년기보다는 아동기 자녀들에게 더욱 위험함을 의미한다. 하영희(2003)의 연구에서도 학년이 올라갈수록 부모의 영향력보다는 개인 스스로가 조절할 수 있는 변인들이 아동의 행동문제에 대해 더욱 영향을 미쳤다.

한편 아동의 성이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보고한 선행연구들(예, 김선희·김경연, 2001)의 결과는 본 연구에서 초등학생 집단에 의해서만 지지되었다. 초등학생 집단에서 성별은 부모의 공격성에 대한 탄력성을 높이는 유의미한 보호요인으로서,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부모의 공격적 행동에도 불구하고 내현적 문제행동을 경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다. Kerig(1998)에 의하면 부모의 갈등에 노출되었을 때 남아는 위협을 느끼는 반면 여아는 자신을 비난하는 경향이 높다. 부모의 갈등과 부정적 상호작용에 대해 남아와 여아가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의 차이는 왜 부모의 공격적 행동으로 인해 여아의 내현적 문제가 남아보다 높은가를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학생 집단에서 성별은 탄력집단과 부적응집단을 구분하는데 전혀 기여하지 못하였다. 공격적인 부모환경에 처한 중학생 자녀의 경우, 내현적 문제의 성차는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였으며, 오히려 부모의 공격적 행동에 노출되지 않은 자녀들에게서 내현적 문제의 수준에 뚜렷한 성차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공격적 행동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은 자녀가 어릴수록 더 심각하다고 주장한 O'Keefe(1994)를 지지하는 것이다. 아마도 자녀의 나이가 들어가면서 부모의 공격적 행동을 인식하고 대처하는 능력이 발달하며(Hetherington, 1984), 따라서 초등학생에 비해 중학생이 부모의 공격적 행동에 대해 탄력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종합해 보면, 초등 여학생이 초등 남학생보다 부모의 공격적 행동으로 인해 문제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으며, 중학생은 남녀 모두 부모의 공격적 행동에도 불구하고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초등학생에 비해 증가하였다. 따라서 공격적 부모 환경에 대한 개입은 최대한 조

기에, 특히 여학생에 대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성과 학년을 구분하여 부모의 공격적 행동과 자녀의 내현적 문제의 관계를 중재하는 보호요인을 살펴보았으나, 대체적으로 주목할만한 학년별 또는 성별 차이는 없었다. 오히려 자녀의 성과 학년에 무관하게 공통적으로 유의미한 보호요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먼저 그러한 보호요인으로 자아존중감을 들 수 있다. 부모의 공격적 행동에 많이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아존중감이 높은 자녀들은 내현적 행동문제를 경험하지 않았다. 자아존중감이 부부폭력을 목격한 청소년 자녀들의 공격행동에 대한 유의미한 중재변인임을 보여준 조미숙(2003)의 결과에 기초해 볼 때, 자녀의 외현적 및 내현적 문제에 걸쳐 자녀의 탄력성에 기여하는 매우 중요한 보호요인인 것으로 보인다. Leadbeater 등(1999)에 의하면 부정적 외부환경의 영향에 대해 자기비난적 취약성을 가진 개인은 죄책감, 무력감, 무가치감에 집착하여 내현적 문제행동을 더 많이 보인다. 특히 자아존중감이 부모의 공격적 행동에 대한 보호요인임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공격적 행동에 노출된 기간이나 정도가 높다면 자아존중감이 저하된다(Grych et al., 2000)는 점에서 자아존중감을 고양시켜주는 개입 전략이 절실히 요청된다.

다음으로 자녀의 성과 학년에 상관없이 유의미한 보호요인으로 부모에 대한 스트레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부모의 공격적 행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많이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에 대한 스트레스가 낮은 자녀는 그렇지 않은 자녀에 비해 내현적 문제행동을 보이지 않았다. 즉 높은 부모의 공격성에도 불구하고 자녀 입장에서 그것을 어떻게 느끼는지의 주관적 경험에 따라 자녀의 문제행동의 수준은 달라짐을 의미한다. 일부 선행연구(이민식, 1999; Osborne & Fincham, 1996)에서 공격적 부모환경에 대한 아동의 해석과 그에 따른 의미가 아동의 적응에 결정적 역할을 함을 보여준 바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문제행동에 있어 객관적 지표보다는 아동의 주관적 지각 즉 개인이 환경에 부여하는 의미가 더 중요함을 주장한 Bronfenbrenner(1986)를 지지하는 것이다.

또한 부모의 공격적 행동에 대한 보호요인으로 부모에 대한 애착이 확인되었다. 특히 여학생보다 남학생에게서, 그리고 초등학생보다 중학생에게서 부모에 대한 높은 애착은 공격적 부모에 대한 탄력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의 애착은 부정적 환경조건에서도 자녀를 보호하고 자녀가 겪는 갈등상황이나 좌절상황에 스스로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는 내적인 힘을 키우게 하는 정서적 안전기지의 역할을 한다(신희경, 2006). 비슷한 맥락에서 O'Keefe(1998)과 Wyman 등(1991)은 어머니나 아버지 어느 한 쪽으로부터 부모학대를 당하는 아동의 경우, 학대를 가하지 않는 다른 쪽 부모와의 긍정적인 관계가 부모학대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중재해 준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역시 높은 부모의 공격성에도 불구하고 부모에 대한 애착이 높다면 부정적 부모-자녀 관계를 보완하고 자녀가 문제행동을 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검증된 부모에 대한 애착의 보호효과는 공격적인 부모 이외의 다른 부모와의 애착인지, 공격적인 부모에 대한 애착인지가 분명하지 않다. 선행연구에 기초해 볼 때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부모 이외의 공격적이지 않은 다른 부모에 대한 애착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격적인 부모에 대한 불안정한 애착 역시 자녀의 탄력성에 기여하는지 후속연구에서 검증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높은 수준의 부모 공격성에도 불구하고 문제행동을 보이는 아동과 그렇지 않은 아동을 구분하는 보호요인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공격적 가정환경의 위험에 노출된 아동을 보호하고 탄력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여 줄 수 있을 것이다. 공격적 가정환경에 대한 최우선의 중재 방안은 부모가 공격적 행동을 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는 것이나, 그 대안으로 자녀의 각 보호요인의 수준을 증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공격적 가정환경에 노출된 자녀들의 탄력성이 높아지고 문제행동의 수준을 낮추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부모의 공격적 행동에 대해 중학생보다는 초등학교의 탄력성이 낮았다는 점에 기초해 볼 때 초등학교들은 부모의 공격적 행동으로 인해 문제행동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욱 높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공격적 부모 환경에 처한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여 개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이러한 개입은 청소년기보다는 아동기의 자녀에게 더욱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부모의 공격적 행동과 자녀의 내현적 문제에 대한 기존 연구들이 학령기 아동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청소년기 자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였으나(신혜섭, 2000), 본 연구에서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함께 분석함으로써 문제행동의 발달단계별 차이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부모의 공격적 행동에도 불구하고 내

현적 문제를 보이지 않는 탄력적 자녀들을 선별하고, 부적응을 보이는 자녀들과 구분되는 이들의 특성을 확인함으로써 공격적 부모 환경에 처한 자녀들에 대한 개입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부모의 공격적 행동으로 인해 야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행동 중에서 내현적 문제만을 분석하였다는 제한점을 안고 있다. 부모의 공격성 및 갈등이 아동의 내현적 및 외현적 문제에 모두 영향을 주는데, 아동의 문제유형에 따라 부모의 공격성이 영향을 주는 경로나 영향력에 차이가 있다(Davies & Cummings, 1994). Harold 등(1997)은 아직까지 부모의 공격적 행동이 자녀의 내현적 혹은 외현적 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차이를 나타내는 기제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두 문제 유형을 구분하여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밝혀진 부모의 공격적 행동과 자녀의 내현적 문제의 관계 및 이에 대한 보호요인의 역할이 공격적 행동이나 비행 등의 외현적 문제행동에서도 동일한지 후속연구에서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조사한 보호요인이 공격적 부모환경에 대한 보호요인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 아님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자녀의 부적응을 내현적 문제로 한정하였는데, 만약 부적응을 외현화 문제나 사회적 적응, 학교적응 등으로 규정하였다면 본 연구에서 확인한 보호요인의 역할은 다를 것이다(Tiet et al., 2001). 또한 위험요인에 따라 일반화가 가능한 보호요인이 있고, 특정 위험요인에 한정된 보호요인도 있다(Tiet et al., 2001). 따라서 아동 및 청소년의 탄력성 제고에 도움이 되는 예방적 개입 프로그램의 마련을 위해서 위험요인에 따라, 그리고 부적응의 유형에 따라 다양한 보호요인의 역할에 대한 검증이 후속연구에서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권영옥·이정덕(1999). 부부갈등과 아동의 행동문제. 아동학회지, 제20권 제1호, pp. 115-133.
- 김선희·김경연 (2001). 학령기 아동의 행동문제 유형에 따른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인과모형. 아동학회지, 제22권 제1호, pp.19-34.
- 김정란(2003). 자녀의 가정폭력 노출과 문제행동: 자녀학대 피해와 아내학대 목격을 중심으로. 한국 가족관계학회지, 제8권 제3호, pp. 67-88.
- 신혜섭(2000). 아내구타가정 아동의 행동문제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16, pp. 67-84
- 신희경(2006). 중학생이 지각한 교사와의 관계가 공격성 발달에 미치는 보완적 역할에 관한 연구. 제 2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pp. 445-466.
- 심희옥(1997). 아동 후기 초등학교 학생의 내적·외적 문제행동인 우울성향과 반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아동학회지, 제18권 제1호, pp. 39-52.
- 이민식(1999). 부부갈등이 아동의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미숙(2003). 부부폭력 목격 청소년의 공격행동에 대한 중재변인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제5권 제2호, pp. 85-101.
- 하영희(2003). 개인변인과 환경변인이 아동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제24권 제4호, pp. 29-40.
- 한미현(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지지 지각과 행동문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Bretherton, I., Ridgeway, D., and Cassidy, J. (1990). Assessing internal working models of the attachment relationship. In M. Greenberg, D. Cicchetti & E. Cummings (Eds.), *Attachment in the preschool years: Theory, research, and intervention* pp.273-308).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 Bronfenbrenner, U. (1986). Ecology of the family as a context for human development: Research perspectives. *Developmental Psychology*, Vol.22 No.6, pp. 723-742.
- Clark, R., and Shields, G. (1997). Family communication and delinquency. *Adolescence*, 32, 81-92.

- Davies, P. T., and Cummings, E. M. (1994). Marital conflict and child adjustment: An emotional security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116, pp.387-411.
- Eisenberg, N., and Valiente, C. (2002). Parenting and children's prosocial and moral development. In M. Bernstein(Ed.), *Handbook of Parenting*, Vol. 5: Practical issues in parenting (pp. 111-142). Mahwah, NJ: Lawrence Erlbaum.
- Feldman, S. S., and Weinberger, D. A. (1994). Self-restraint as a mediator of family influence on boys' delinquent behavior: A longitudinal study. *Child Development*, Vol.65 No.1, pp.195-211.
- Garnezy, N. (1991). Resilience in children's adaptation to negative life events and stressed environment. *Pediatric Annals*, Vol.20 No.9, pp.459-466.
- Gore, S., and Eckendrode, J. (1996). Context and process in research on risk and resilience. In R. Haggerty, L. Sherrod, & G. Rutter (Eds.), *Stress, risk, and resilience in children and adolesce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rych, J., Jouriles, E., Swank, P., McDonald, R., & Norwood, W. (2000). Patterns of adjustment among children of battered women. *Journal of Counsel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68 No.1, pp.84-94.
- Harold, G. T., Fincham, F. D., Osborne, L. N., and Conger, R. D. (1997). Mom and dad are at it again: Adolescent perceptions of marital conflict and adolescent psychological distress. *Developmental Psychology*, Vol.33 No.2, pp.333-350.
- Hetherington, E. (1984). Stress and coping in children and families. In A. Doyle, G. Gold., & D. Moskowitz(Eds.), *Children in families under stress*. San Francisco, Jossey-Bass.
- Holden, G., and Ritchie, K. (1991). Linking extreme marital discord, child rearing and child behavior problems: Evidence from battered women. *Child Development*, 62, pp.311-327.
- Hughes, H. (1988).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correlates of family violence in child witnesses and victim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8, pp.77-90.

- Kerig, P. K. (1998). Moderators and mediators of the effects of interparental conflicts on children's adjustment.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Vol.26 No.3, pp.199-212.
- Leadbeater, B. J., Kuperminc, G. P., Blatt, S. J., and Hertzog, C. (1999). A multivariate model of gender differences in adolescents'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Developmental Psychology*, Vol.35 No.5, pp.1268-1282.
- Luthar, S. S. (1991). vulnerability and resilience: A study of high-risk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Vol.62, pp.600-616.
- Luthar, S., Cicchetti, D., and Becker, B. (2000). Research on resilience: Response to commentaries. *Child Development*, Vol.71 No.3, pp.573-575.
- Masten, A., Hubbard, J., Gest, S., Tellegen, A., Garmezy, N., and Ramirez, M.(1999). Competence in the context of adversity: pathways to resilience and maladaptation from childhood to late adolescence.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Vol.11, pp.143-169.
- McEvoy, A., and Welker, R. (2000). Antisocial behavior, academic failure, and school climate: A critical review. *Journal of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Vol.8 No.3, pp.130-140.
- O'Keefe, M. (1994). Linking marital violence, mother-child/ father-child aggression, and child behavior problems. *Journal of Family Violence*, Vol.9 No.1, pp.63-78.
- O'Keefe, M. (1998). Factors mediating the link between witnessing interparental violence and dating violence. *Journal of Family Violence*, Vol.13 No.1, pp.39-57.
- Osborne, L. N., and Fincham, F. D. (1996). Marital conflict, parent-child relationships and child adjustments: Does gender matter? *Merrill Palmer Quarterly*, Vol.42, pp.48-75.
- Robinson, J.(2000). Are there implications for prevention research from studies of resilience? *Child Development*, Vol.71 No.3, pp.570-572.
- Rutter, M. (1990). Psychosocial resilience and protective mechanism. In J. Rolf, A. Masten, C. Cicchetti, K. Nuechterlein, & S. Weintraub (Eds.), *Risk and*

- Protective Factors in the Development of Psychopathology*.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mith, J., O'Conner, I., and Berthelsen, D. (1996). The effect of witnessing domestic violence on young children's psycho-social adjustment. *Australian Social Work, Vol.49 No.4*, pp.3-10.
- Spaccarelli, S., Sandler, I., and Roosa, M. (1994). History of spouse violence against mother: Correlated risks and unique effects in child mental health. *Journal of Family Violence, Vol.9 No.1*, pp.79-98.
- Stagg, V., Wills, G. D., and Howell, M. (1989). Psychopathology in early childhood witnesses of family violence. *Topics in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Vol.9*, pp.73-87.
- Sternberg, K., Lamb, M. E., Greenbaum, C., Cicchetti, D., Dawud, S., Cortes, R. N., Krispin, O., and Lorey, F. (1993). Effects of domestic violence on children's behavior problems and depression. *Developmental Psychology, Vol.29 No.1*, pp.44-52.
- Tiet, Q., Bird, H., Hoven, C., Wu, P., Moore, R., and Davies, M. (2001). Resilience in the face of maternal psychopathology and adverse life event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Vol.10 No.3*, pp.347-365.
- Tiet, Q., and Huizinga, D. (2002). Dimensions of the construct of resilience and adaptation among inner-city youth.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Vol.17 No.3*, pp.260-276.
- Werner, E. E., and Smith, R. S. (1982). *Vulnerable but invincible: A study of resilient children*. New York: McGraw-Hill.
- Wolfe, D., Crooks, C., Lee, V., McIntyre-Smith, A., and Jaffe, P. (2003). The effects of children's exposure to domestic violence: A meta-analysis and critique. *Clinical Child and Family Psychology Review, Vol.6 No.3*, pp.171-187.
- Wolfe, D., Jaffe, P., Wilson, S., and Zak, L. (1985). Children of battered women: The

relation of child behavior to family violence and maternal stres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 53 No. 5, pp. 657-665.

Wolin, S. J., and Wolin, S. (1993). *The resilient self: How survivors of troubled families rise above adversity*. Villard Books: NY.

Wyman, P., Cowen, E., Work, W., and Parker, G. (1991). Developmental and family milieu correlates of resilience in urban children who have experienced major life stres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Vol. 19 No. 3, pp. 405-426.

Zaslow, M., and Hayes, C. (1986). Sex differences in children's responses to psychosocial stress: Toward a cross-cultural context analysis. In M. Lamb, A. Brown, & B. Rogoff(Eds.), *Advances in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4, pp. 285-338. Hillsdale, NJ; Erlbaum.

ABSTRACT

The Relationships of Parental Aggression to Internalizing Problems of Children

Lee, Eun-Ju*

This study was to examine both gender and age differences in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aggression and internalizing problems of children. This study was also to explore the protective factors that moderate these relationships. The data of fourth and ninth graders from Korea Youth Panel Study(KYPS) were analyzed. Results showed that parental aggression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internalizing problems of children. Fourth grade girls were more vulnerable to internalizing problems because of aggressive behaviors of their parents than fourth grade boys. No gender differences were found among ninth graders. However, both boys and girls get to resilient to the parental aggression with age. Furthermore, results highlight the importance of self-esteem and self-control, attachment to parents, and little stress of parents in preventing the negative effects of parental aggression on internalizing problems. Suggestions for the future studies are discussed.

Key Words : parental aggression, internalizing problems, protective factor, resilience

투고일 : 3월 30일, 심사일 : 5월 1일, 심사완료일 : 7월 2일

* Halla University